

전북대 임경택 교수, 제18대 한국가족학회 회장 취임

전북대학교 임경택 교수(고고문화인류학과)가 한국가족학회 제18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전했다. 임기는 올해 12월까지 1년이다.

1977년 창립된 한국가족학회는 한국의 가족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개인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사회의 발전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관련 분야 국내 대표적 학회다.

특히 사회학과 인류학, 역사학, 법학, 철학에서부터 심리학, 사회복지학, 생활과학, 정신의학에 이르기까지 다학제적 학회로, 가족과 관련된 학술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지적 교류를 통해 가족연구와 건전한 가족문화 발전을 도모해왔다.

임 교수는 취임사에서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와 교육 양면에서 쟁점들을 공유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가족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더불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임경택 교수는 한국문화인류학회 회장 및 동아사이학관인회의 조직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전북대 출판문화원장과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 교육연구단장을 맡고 있다. /장은성 기자



그날의 함성이, 하나 된 임실의 힘으로

임실군, 박준승선생기념사업회 주관 제105주년 청운면 기미3.1독립운동 기념식 개최

제105주년 청운면 기미3.1독립운동 기념식 및 재현행사가 박준승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한경희) 주관으로 지난 15일 청운면 기미만세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설상회 부군수,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 손순옥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등을 비롯한 각급 사회단체 및 학생, 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준승 선생의 유족이 참석하여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은 3.15 운동 역사 보고를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시가행진 및 재현행사 등을 진행했으며, 임실필봉농악단의 3.1절 기념 추모 공연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열을 새기며 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임실 청운면 출생으로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분인 박



준승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기미만세공원에서 3월 15일을 기점으로 시작, 청운면 전체에 독립운동이 확산된 것을 기념하여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설상회 부군수는 "거룩한 희생으로 이뤄낸 역사적 독립운동을 가슴 깊이 새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임실을 만들자"고 말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 이어 임실문화원 강당에서 전북일보, JTV 전주방송, 사)사선문화재단위원회, 사)독립운동가 박준승선생기념사업회 주최로 3.1만세운동 105주년 기념 특별강연회가 개최됐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전개와 전북 임실지역의 3.1운동 등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으며, 35사년 장병과 임실동중학교 학생들이 참여,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김제시농축협조합운영협의회, 미래 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김제시농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은 김제시농축협운영협의회(회장 최승운)가 김제지역 교육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해 18일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제시농축협운영협의회는 농업 김제시지부 및 관내 13개 농·축협, 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이) 뜻을 모아 운영 중인 단체로 지난해 1,300만원에 이어 올해도 김제시농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또 수시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및 농축산물 나눔, 농번기 일손 돕기 등 다각도의 활동을 추진해 김제시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최승운 김제시농축협운영협의회장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 김제의 빛나는 인재들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실현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유대를 지속하며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나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농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역 학생들을 향한 관심과 지원을 나눔으로 실천해 주어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한 장학금은 김제시가 학생들의 학업 환경 개선과 장학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순창 동계면 출신 이인례 여사, 고향사랑기부 500만원 전달

순창군 동계면 출신 임규래 대한적십자 전국대위원의 배우자인 이인례 여사가 지난 16일 열린 제23동계면향우회에서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인례 여사는 배우자인 임규래 회장과 더불어 자녀와 함께 20년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매년 기부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순창 동계 초·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각 사회 단체에 지속적인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 작년, 임규래 회장의 500만원 기부로 이어 올해 이인례 여사의 기부는 가족이 함께하는 고향사랑기부 문화 조성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이인례 여사는 "저희 부부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부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작은 기부가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제시 드림스타트 슈퍼비전회의·부모교육 성료

김제시(시장 정성주) 드림스타트는 지난 16일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기마다 실시하는 2024년 도 1차 슈퍼비전 회의와 부모교육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는 지난 1월부터 매주 내부 사례회의와 매월 아동복지기관협의회 사례회의를 실시한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한 고난도 사례에 대해 '드림스타트 외부 슈퍼비전' 사례회의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슈퍼비전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취약계층 아동과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개입, 서비스와 자원 활용 방안 등의 어려움을 발표, 해결을 위한 자문을 받는 상호소통 교육의 장으로 외부 전문가(슈퍼비저) 김광혁(전주대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지도로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기관 전주대학교 김광혁교수를 초빙해 진행했다.

이날 슈퍼비전은 드림스타트 담당 공무원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난도 아동사례관리대상자 맞춤형 개입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사례관리 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도 사례에 대해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해결 방안 및 개입 방법 등을 논의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은 "슈퍼비전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례에 대해 다양한 접근방법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지속적인 슈퍼비전을 통해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순창군, 2024년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순창군은 지난 1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1분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보건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제산업국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용자 측 위원 5명과 근로자 대표인 공무원직 노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근로자 측 위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는 2023년도 하반기 협업사업장 위험성평가 결과로 유해 위험요인 개선조치에 대한 조치결과를 공유했으며, 2024년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행안 등을 심의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조건 조성을 위하여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며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보다 성숙한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초록우산 전북, 완주 선덕보육원에 후원금 전달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가 완주군 선덕보육원(원장 성제환)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18일 완주군청을 찾은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는 보호대상 아동 자립지원 협력사업에 선정된 선덕보육원 측에 후원금을 기탁했다.

후원금은 선덕보육원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9개월 동안 진행되는 '마음근력강화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초록우산 협력사업은 '가족돌봄아동지원, 이주배경아동지원, 보호대상아동 지원사업' 등을 주제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관과 연대하는 사업이다.

구미희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장은 "협력사업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바르게 살기 운동 전주시 협의회 장상태 회장 선출

바르게 살기 운동 전주시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대의원 만장일치로 제15대 회장으로 장상태씨(슈타영기술공사 대표이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회장)를 선출했다.

장상태 회장은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각 봉사단체 등에서 노력하고 매년 장학금도 전달하고 있는 봉사자이다. 특히 소외계층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매년 후원하며, 또한 토목분야 관련업체들의 권익,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다.

장상태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을 3대정신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자랑스러운 전주시 화원을 만들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종중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봉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바르게살기 전주시협의회는 1989년 창립했으며 태극기 달기, 영, 호남화합, 효행시상식, 교양교육, 불우이웃돕기, 행복꾸러미 나눔, 사랑의 김장하기 등으로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남원중앙로타리클럽, 대강면에 전기장판 기부

남원시 대강면은 지난 14일 불철 난방에 취약한 관내 세대를 위해 남원중앙로타리클럽(회장 양재우)이 전기장판 8세트(150만원 상당)를 전달해 왔다고, 18일 밝혔다.

중앙로타리클럽은 매년 장학금 지원, 명절 이웃돕기, 장애인 돌보기, 소년소녀가장 돕기, 독거노인 돌보기, 사랑의 연탄나눔, 주거환경개선사업, 생필품 나눔사업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양재우 회장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종표 대강면장은 "면은 로타리클럽의 봉사와 나눔정신을 잘 이어받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시 노암동, 1년 5개월째 제과 후원

남원시 노암동은 좋은아침 PASTRY(남원점 대표 윤문숙) 등과 제과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년 5개월째 제과 후원으로 꾸준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PASTRY는 주 2회, 3만 원 상당의 제과를 2~3상자씩 기부해 그동안 후원받은 제과는 노암동장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풍행정 일환으로 600여 가구에 전달, PASTRY가 제공하는 제과 나눔은 지역사회에 또 다른 감동을 주고 있다.

윤문숙 대표는 "최근, 사업장 이전을 겪어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나 이웃을 돕는 일은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지속적인 후원의 뜻을 밝혔다.

한편 임집숙 노암동장은 "1일 1가구 방문 시 제과를 받고 환한 미소를 짓는 분들을 보면서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마령면 제11기주민자치위, 봄 맞이 환경정화 활동

진안군 마령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호)는 18일 시가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새롭게 시작한 제1기 주민자치위원 18명, 섬진강 상류 환경운동연합 15명, 마령면행정복지센터 직원 10명이 참석해 시가지의 손이 닿지 않아 방치돼 있는 쓰레기를 수거했다.

송금옥 변장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있기에 마령면이 깨끗하게 유지한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기호 위원장은 "제1기 주민자치위원들과 마령면을 위해 앞으로도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진안 용담면 지사협, '따뜻한 돌봄사업' 펼쳐

진안군 용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철민, 민간위원장 문동일)는 지난 15일 '사시시설 따뜻한 돌봄사업(달반찬 및 생선 축하 꾸러미 지원)'을 추진해 올해 마을 복지사업의 포문을 열었다.

'사시시설 따뜻한 돌봄사업'은 용담면·용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약(2021년 2월)으로 모금하고 있는 '행복시랑플러스' 기금을 통해, 관내 80세 이상 독거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52명에게 분기별로 밀반찬과 생선축하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용담면지역봉사단체(단장 안준옥)이 주축이 돼 소고기국, 오징어무침, 어묵볶음 등 밀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각 가정을 방문하며 직접 전달했으며, 생선을 맞이해인 어르신들에게는 생선축하꾸러미도 함께 전달하며 인부를 살렸다.

/진안=유태만 기자